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의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한 태양으로 길이 빛나시리

영원한 태양으로 무궁토록 빛나시리
천년만년 장군님은 영생하시리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길이 빛날 민족의 대명절 광명성절이여
장군님 태양의 영상과 더불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워지는
끝없는 송가되어 이 땅에 울려 퍼지거니
쌓으신 업적 배푸신 은혜
다함없는 정모가 물결치는 2월명절
바쳐오신 천만헌신 잊을수 없어
한평생 조국과 겨레를 위해
강산은 눈부시고 밝음에 넘쳐라
광명성절 이 아침 태양의 그 미소에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인가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태양의 빛발은
흰눈덮인 정일봉마루에 솟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자주위업에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쳐진 위대한 한생

광명성절을 맞이한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 있다.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속에 맞이하는 광명성절이여서 그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더 뜨겁게 분출하고있으며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심의 발원이다.

위인은 사상과 령도, 덕망과 업적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위대한 장군님처럼 한평생 자신의 온 힘을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그런 위인은 없는 것이다.

일찌기 나라없던 그 세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통탄산마루에서 다지신 조선을 빛내일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그이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분투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령도의 전기간 지구돌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장정을 걸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른 새벽에도, 눈비가 오는 곳은 날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의 시

기 불리는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강성국가의 찬란한 태일을 안아오시려는것이 그이의 결심이고 의지였다.

국력이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새기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시어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였고 강성국가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몇해전 정초 어느 한 땅크 부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선군을 떠나서는 결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는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하시었다.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었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맹천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최첨발전소건설장소를 비롯한 대고조의 격전장들을 찾으시였으며 한 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삼북철강행군을 이어나신 장군님이시었다.

우리 나라를 강성국가로 만드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아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인 기억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신 장군님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에로부터 사람들은 위인의 출현이나 나라와 민족에게 행운이 차례질 징조를 봄우뢰에 비기어 말해왔다.

주체31(1942)년 2월 16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었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백두산 동쪽하늘에는 새별이 솟아 눈부신 광채를 뿌리고 천지의 얼음장이 갈라지며 봄우뢰가 련이어 울려퍼졌다고 한다.

그들은 민족의 대통운을 예고하는 력사의 봄우뢰였다. 《백두산에 장수별이 솟았다》

《조선의 미래는 그분의 성덕으로 융성번영할터이니 민족의 대통운이면 이보다 더 큰 대통운이 어데 있는가》

그이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삼천리각지에 퍼져가 겨레의 가슴가슴에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총포소리 울부짖는 항일의 전장에서 백두설한봉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령장의 슬기와 담력, 배짱을 키우신 장군님이시었다.

위인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백두산의 봄우뢰는 그후 총대로 승리만을 떨치는 승리의 봄우뢰로 끓끓이 울려 퍼지었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번영도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일찍부터 어머니수령님과 함께 선군의 길을 걸으시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의 마지막막년대인 1990년대는 지구상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총

포성이 그치지 않고 제앙의 화염이 하늘가를 뒤덮었던 시기였다.

80여개 나라에서 120건의 무장분쟁과 전란이 일어나 600여만명이 목숨을 잃고 약 3억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파난민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반도에도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며 침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물러오고 있었다.

1993년 2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사후하여 이른바 《핵의혹》을 운운하며 공화국의 군사사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라는것을 채택케 했으며 일시 중단했던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고 20여만의 무력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면서 정세를 각일각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천하를 뒤 흔든듯 봄우뢰소리외와 같은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고 《핵무기전 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한다는 공화국 정부성명이 울려 퍼지었다.

세계의 여론은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오스트랄리아방송이 이날을 두고 《지구가 깨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지적한것이 우연하지 않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창건하

신 불패의 혁명무력인 백두산장군이 있고 한생을 바쳐 키워주신 자주적인민이 있는 한 두려울것이 없고 해낼일이 없다고 하시며 고난과 역경을 맞받아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수호되고 국력은 비상이 강해졌다.

제국주의의 봉쇄와 자연재해로 허러미를 조여낸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보시면서도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고야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판문점과 초도, 1211고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지혜산 등 최전연초소를 찾아가신분, 다른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놀라 스스로 무장을 버릴 때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하시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도록 하시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오늘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신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국의 길, 그 길에서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신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오성산의 갈벼랑을 넘으시고 풍랑사나운 배길을 헤쳐가신 원수님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정의의 수호자가 계시어 백두산의 봄우뢰는 민족의 앞길에 찬연한 봄을 불러, 겨레의 운명을 지켜 무궁토록 메아리 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신 장군님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철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혁이 펼쳐질수 있었을 래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는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 어대진청년제염소와 같은 희한한 제염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부강할 조국의 태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공화국은 CNC기술의 세계적대전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최첨단돌과전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기가 세계의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령도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으며 탁월한 정치가, 회세의 전략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청송하였다.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귀을 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만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불과 같은 이 강그리 태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절세 위인이신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사랑의 고귀한 귀감

목장, 소목장, 닭목장, 양어장을 비롯한 축산양어기지와 만수대거리, 마전호텔, 갈마목장 등 건축물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수놓처럼 일떠선 창조물마다에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기술이신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그이께서 음식상을 볼 때에도 인민들의 밥상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옷을 볼 때에도 인민들의 옷차림을 먼저 생각하고 집을 지을 때에도 인민들의 살림방을 먼저 생각하고 하신것을 보면 인민의 요구와 리익, 지향을 얼마나 최우선, 절대하시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는 것이다.

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2월 어느날 현대적으로 개건된 2.8비날론합기업소를 찾으셨을 때였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기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깃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것하얀 비날론솜을 보고 또 보시며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

날론솜감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귀한것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판점과 림장, 요구였다.

2011년 3월이였다.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 말한대로 평양시에 공동어관을 건설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공동어관을 건설하면 인민들, 특히는 청소년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통라도에 유휴장과 물놀이장을 꾸릴것으로 예견하고있는것만큼 공동어관도 거기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침과 유훈에 따라 건설되어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통라공동어관이다.

나는 그날들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며 사시 장철 곳날, 마른날 가림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도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으로 일관된 투철한 인민판의 발현이였다. 그 길에서 대동강과 종합농장같은 굴지의 청춘과원이 태어나고 철강산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나아가는 자랑찬 현실, 장자강의 불야경, 한드레벨의 지평선과 같은 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평양의 현대적인 인민극장도 자신의 한평생을 쉼어차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며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께서 인민자가 붙은 극장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신 송고한 사랑을 깊이 전하고있다.

로고로 침습한 무거운 병상대를 놓고 의료진이 강행군을 삼가해달라고 간청드렸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이 하라는대로 할수가 없다고, 내가 북중해주어야겠다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

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이의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품모에 대해 재우즈베기스만평도신문 《통일》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것이 국가 및 정치활동가이시며 인간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생활신조였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정일령도자는 나라를 위해 한평생 모든 정력을 강그리 쏟아부었으며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 바쳐 일하였다.》고, 몽골의 문재계통신문은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현지도의 길에서 열차에서 손직하시였다. 그이의 로고의 자취는 조선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의 태양, 천출위인

을 호령하듯 군림했던 오만한 미국을 끝없는 굴욕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군 그러한 지도자를 다시 만날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남조선인 리내선신문 《통일뉴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처럼 현지도의 길을 달리던 야전전차에서 생을 마감한 지도자가 또 있는가. 《유일초강국》이라는 명패를 내걸고 지구는 물론 우주공간까지 라고앉아 마친 온 세상

을 호령하듯 군림했던 오만한 미국을 끝없는 굴욕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군 그러한 지도자를 다시 만날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남조선인 리내선신문 《통일뉴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처럼 현지도의 길을 달리던 야전전차에서 생을 마감한 지도자가 또 있는가. 《유일초강국》이라는 명패를 내걸고 지구는 물론 우주공간까지 라고앉아 마친 온 세상

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어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래일을 보며 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으로 빛나는 2월의 봄은 영원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의 유훈인 창건거리살림집과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통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평양민속공연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훌륭히 완공되도록 하시였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송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파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창조물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시었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장군님의 애국의 빛, 애국의 숨결, 애국의 기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충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그이의 위인적품모에 대해 로길남 재미동보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백두의 정기 뿌리는 2월의 봄을 영원한 민족적대통운의 봄으로 빛내어주시는 찬란한 태양으로 우뚝 솟아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북녘동포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받으며 백두산위인들이 지닌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 인간애로 2월의 봄을 더욱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발하게 해주고있다.》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2월의 봄은 영원하며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과 유훈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리 설

쌍의신 크나큰 업적은 길이 빛나리

광명성절의 민족사적의의를 되새겨봅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아 환희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우리 겨레는 태양절과 함께 광명성절을 민족사에 아로새긴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광명성절, 그 민족사적의의를 되새겨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더욱 숭엄히 안겨오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를 세월이 무궁토록 호르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2월의 봄을 맞아 겨레의 마음은 백두산으로 끌리어 달려갑니다. 멀리 이역에서 정일봉기군의 백두산 밀영고향집을 그려보니 력사의 그날에 항일선열들이 리치던 환호성이 메아리 쳐옵니다.

《겨레의 백두산에 광명성 솟았다》, 《2천만 백의민족 대통은 백두광명성 출현》, 《조선의 민족이 자랑하라 아침에 밝은 내 나라에 광명성 솟아 너를 반긴다》...

72년전 민족의 대통운이 열리던 환희가 파도쳐옵니다.

력사의 2월 16일과 더불어 팔도강산에는 조선의 미래가 백두광명성의 성덕으로 통성할것이라는 전설이 파다하게 퍼져갔습니다. 오죽하면 일제가 《하늘이 절지한 옥동자가 백두령지 삼지연에서 출생하였다는 선전이 민심을 크게 혼란시켰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백두산으로 향한 2천만동포의 축원과 년원을 막아보고 치안력까지 동원시켰겠습니까.

백두광명성호칭에는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우리르던 김일성장군님의 위업을 이으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맞이한 겨레의 감격과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망국의 비운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에 생명의 필수요소인 빛-광명에 대한 갈망은 남달랐습니다. 겨레의 이 소망이 향한 곳은 백두산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주난의 그 시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의 기치높이 백두광명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리시었으니 그때부터 조종의 성산 백두산은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구원의 등대로 우뚝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피어난 항일의 혈전속에 바야흐로 조국해방의 령명이 밝아오던 1940년대 초 민족의 령산은 백의민족에게 다시금 행운을 선사하였습니다. 신비의 정기를 뿜어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 백두광명성을 만들어올렸습니다.

광명성절, 그 고귀한 부름에는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안고 탄생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민족대대의 형성민족을 위한 든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충성이 비껴있었습니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

란하다》고 격정을 리치며 항일선열들이 예언한것처럼 광명성, 그 찬연한 빛발과 더불어 얼마나 전설같은 기적을 펼쳐며 사회주의조선의 현대력사가 수놓아졌습니까.

위인이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땅위에 자랑스럽게 펼쳐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들을 더듬어볼수록 가슴뜨겁습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릴수 있었습니다.

타국에 전파할만 한 자기의 철학사조 하나 가져본적 없는 우리 민족이 오 늘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리념으로 력사를 주도하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세계를 향도하고있으니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끌이 없습니다.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그 어떤 강적도 범접 못하는 군사강국의 기상을 떨치며 행성의 부름을 모은 공화국의 력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난 세월 망국의 실음을 통탄하며 이역땅으로 휘부러졌던 우리 해외동포들이 가슴을 짚고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긍지높이 웨치며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오는 민족사의 일대 전환은 선군으로 강위력한 공화국의 위용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로동당시대의 일대 통성기,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펼친 20세기 문예부흥기,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

참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며 그 존엄과 기상을 떨쳐온 주체조선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광명성의 빛발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고있습니다. 온 겨레, 온 인류가 광명성의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고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발전에서 쌓아올리신 그 불멸의 공적에 매혹되고 경탄하였습니다.

이 시각 저의 가슴속에는 감회도 새로운 주체81(1992)년 2월 16일을 맞으며 몸소 붓을 드시고 《광명성찬가》를 쓰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이 숭엄히 되새겨집니다.

이미전부터 이날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을가 하고 마음씨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붓을 드시고 김일성민족사에 대를 두고 길이 빛날 《광명성찬가》를 한자한자 써내려가시었습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신통인가 문무총요 겸비하니 모두다 우리르네 만민이 징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나

최수봉

그때 수령님께서 우리 겨레의 이 소망을 풀어주시는 분은 생 혁명을 하여오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껴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오신 뜻깊은 송시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이 시는 자신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송시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혁명을 더 충실하길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인민에게 오신 때로부터 늘 인민과 함께 계신분, 자신을 다 바치시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아로새겨오신 장군님이시기에 조국에서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언제나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곤 하는것이 그의 인민사랑의 자욱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자신의 고결한 삶을 뿌리에 비겨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크나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의께서는 일군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락을 바라지 말자, 강성국가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함께 뿌리가 되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억센 뿌리가 거목을 떠받들고있듯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고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부류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와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던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그 열화와 같은 사랑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의 업축한 시련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성기도 펼쳐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나날 《폭잡과 꿩기방》, 《삼복칠강행군》, 《심야강행군》 등 얼마나 많은 혁명일화들이 집없이 전해져 단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까. 광명성 찬란한 빛발아래 분별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삼천리강토 위에 통일외의 사랑이 비쳐오고 6.15시가 펼쳐져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진맛을 느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활로를 기운차게 열어들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세출의 영웅사자를 수놓아오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부를 누려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영원히 그 품속에 안겨살기를 념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인민들이 아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조국에 애국의 마음을 퍼줄기처럼 더 든든히 잇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광명성절이면 아버지를 그리는 자식의 심정으로 서둘러 조국으로 향하는 우리들입니다.

광명성절, 그 성스러운 부름은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끝없이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에 대한 감동의 화폭입니다.

수령명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국의 천만군민이나 우리 온 겨레의 신념이며 실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장군님의 력사는 오늘도 뜨겁게 흐르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백승의 기치로 나부끼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주와 정의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세계가 대목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며 공화국을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어가시는 화폭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입니까.

지난해 조국을 다녀온 동포들은 한결같이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수추순처럼 솟아올랐다고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력사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수마구락부, 유유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게다가 세계굴지의 마시령스키장이 개장되어 세인의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조국땅에서 세계일류급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앞당겨 보는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감동에 젖어 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초 인민군 부대에 새로 건설한 수산물생산동시 설을 돌아보신 이야기입니다. 그 날 원수님께서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오신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름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팔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며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하게 해보시고 그 사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었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전에는 몸소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아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사랑을 부여주

시어 또다시 만민을 감동시키시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주의의 숭고한 뜻이 어떻게 현실로 꽃피어나는가를 전하는 전설같은 화폭이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외계층으로 사람들의 관심밖의 대상인 이들의 생활문제가 나라의 큰 중대사로 되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동포들은 올해에 끊임없이 이어질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로정도를 봅니다.

우리 동포들은 모진 광풍을 맞았을 때 차게 나부끼는 선군의 기치를 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삽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서도 최전방열전지역으로부터 파도치는 심초소 그 어디라없이 찾고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선군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있습니다.

일심단결과 불멸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대명제를 내놓으시고 김정일에 국주의를 온 겨레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애국주의의 표본이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간직된 일념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러보는 통일강국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그렇듯 열렬히 호소하신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때 대한 내용에는 겨레의 비극적운명에 종지부를 찍으시려는 그의 애국애족의 결단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내고 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리쳤습니다.

온 겨레가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우리민족끼리리념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자는 애국애족의 호소에 진심으로 화답할 때 북남관계는 개선되고 6.15시대의 벽찬 환희와 감격은 또다시 재현될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줄기차 광명성절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을 세계가 우리르려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기 위해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마련되어 가는 창조적 열매는 광명성절에 드리는 영생축원의 꽃다발이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계시어 온 겨레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으로 영광될것이며 광명성절은 태양절과 더불어 민족최대의 명절로 무궁토록 길이 빛날것입니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 18차 김정일화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경정화전시관에는 《제18차 김정일화축전》, 《광명성절정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세워져있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었다.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축전장에는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장에 내놓았다. 회세의 천출위인을 우리러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제 18 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진귀한 화초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이 당의 진두적호소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전은 한평생을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펼쳐진 영생축원의 꽃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정충의 꽃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회세의 선군대양을 모신 무한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장엄한 총진군길에 과감히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 세상 천차만별의 인간들중에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역시 어릴적꿈이 원에 사였을 정도로 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나의 집 대한 작은 화원에서 달래곤 하였다. 그후 고국을 다녀온 동포들로부터 만민의 축복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신비의 꽃에 대한 그리움은 날로 더해만 갔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조국방문이 성사된 이번 기회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김정일화축전장에 직접 와서 김정일화를 보는 순간 나는 넋을 잃었다. 열정의 생기를 뿜는 붉은색의 매혹적인 꽃ים, 청신하고 역센 느낌을 주는 푸른 잎사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꽃들을 무색케 하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모두 갖춘 꽃이었다.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었다. 온 겨레와 진보적인

류가 열화같이 흠모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국의 결정체였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재배 과정이 힘들다는 김정일화를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이 저저마다 정성껏 키워 이번 축전장에 보내는 것이었다.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절세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은 한결같은을 그들이 보내면 활짝 핀 김정일화들을 모신듯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 꽃들을 보면서 나도 김정일화를 직접 키워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권에서적들을 구하여 김정일화재배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하였다. 알뿌리를 어떻게 자래우며 생육조건에 알맞는 온도와 빛은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재배방법을 알아두었다. 레년에는 어떻게 하나 내가 직접 키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할 결심이다. 재키나리동포 리수려

본사기자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 아침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민족분열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리를 덜어 드리는 것을 자신의 최대의 본분으로 삼으셨다.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열의 장벽을 일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조국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써 말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바 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려고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로선을 밝혀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력사적로작에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도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닦으셨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셨다.

파란깊고 폭설많은 통일운동사에 승리의 기치로 휘날리게 된 조국통일3대원칙, 그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

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추호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정적실력, 확고한 통일외의지를 지니시고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었다.

2000년 6월의 평양상봉에서 채택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은 겨레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 통일의 리정표이다.

격동적인 6.15통일시대의 나날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의 인사들과 동포들을 허물없이 만나주시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침들을 주시었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적합의를 이끌어내며 민족적합의를 주체로 내세우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자주리념과 애국애족의 뜻에 매혹되어 대자본가, 정치인, 통일인사들을 비롯한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평양으로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

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6.15통일시대에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을 비롯한 삼천리 곳곳에서 민족통일대추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열렸으며 분열의 장벽을 깃부시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장장 수십년간 헤어져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던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열처지고 금강산과 개성관광길이 열려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녘동포들이 민족의 명승지들을 찾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7년 10월에는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력사적인 10.4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외의지, 뛰어난 통일방안인 공화국창건 6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구절구절에도 어리여었다. 로작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흥성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자면 자주통일의 리정표

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깃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야 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자신을 초월처럼 장그리 불태우시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다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대대손손 길이 전해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칭송하면서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 위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생신날 밤에도

주체64(1975)년 2월 16일이였다. 만민이 울리는 지성어린 축원을 받으시며 단 한순간이나마 휴식하셔야 할 이날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녁늦어서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아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제일 심려하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걱정이 많으시여 생신날 밤마저도 쉬지 못하시고 자기들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일군들은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한해에 한번밖에 오지 않는 뜻깊은 생신날의 한밤을 조국통일의 려명을 안아오는 일에 고스란히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며 일군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시금 가다듬었다.

《통일각》

아버이수령님과 토론하시어 《통일각》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였던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회고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참으로 《통일각》은 그 이름으로 보나 건물외형과 내용도 있어서 손색이 없는 멋쟁이집이었다.

《통일각》이 준공된 후 이곳에서는 많은 북남회담들이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였다

북남고위급접촉이 12일과 14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원동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표단, 남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보조정회의》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를 개선하

여 민족적단합과 평화변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북과 남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에서 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북과 남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상리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호상 편리한 날자에 고위급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남에서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힘을 합쳐야 하며 조국통일운동의 대하에 용약 뛰어들어야 한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열은 곧 매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민족의 힘을 모아

해내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길에 떨쳐나서고 있는 때에 8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평양, 서울, 도교에서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범민련이 발표한 공동결의문의 문은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북남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

족의 분열도 근 70년, 장산도 변한다든 10년이 일곱번재가 되어오도록 우리 겨레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 있다.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가

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공화국이 중대제안에 이어 다시금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또다시 북남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남측에 제의한것은 더이상 수방관할수 없는 민족분열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애국애족의 결단, 내외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실천적으로 열어갈 일

의 리익을 위하여 민족의 힘을 합쳐야 한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열은 곧 매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고

하나의 강도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지도 70년을 헤아리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삼천리강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국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으시며 펼쳐시는 그이의 사색과 로고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도 뜨겁게 어리여었다.

다 아는바이지만 판문점은 우리 겨레의 분열의 한이 깊게 서려있는 곳이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있는 첨예하고 긴장한 지역이다. 바로 이런 판문점을 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어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백두산위인들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으신 심군정장께서 조국통일의 진두에 변함없이 서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력사적사건이였다.

3월의 그날 판문점을 찾으

시고 조국통일의 사명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한신 연설과 여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결연한 통일외의지를 온 세상에 천명하시였다.

오랜 세월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겨레가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를

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내외호전세력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초진장상태로 몰아갔으며 이로하여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다. 그러나 천출명장의 담력과 슬기,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이 계심으로 하여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은 확고히 담보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삼천리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결심과 의지는 하나의 기념비적전투에도 뜨겁게 어리여었다.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발전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평양민족공원건설장을 찾으시어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잘 꾸려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를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이어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였으며 이것은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민족분열의 장본인인 외세가 아무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도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세울수는 없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리 어 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받들여 민족자주위업 완수하자

인민사랑의 정치가

이 세상에 꿈과 리상이란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인류는 거기에 아름다운 희망도 실어보고 마음속위안도 찾으면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천도교에서 말하는 《지상천국》도 바로 만백성의 편안과 복락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꿈과 리상을 반영한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꿈이 좋다고 꿈속에 살수 없고 별이 곱다고 따올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쉽게 이룰수 없는것이 꿈과 리상이다. 그래서 앞날의 꿈과 리상을 아예 저버리거나 잃어버린채 참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봄날의 숲처럼 부풀어 오르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누구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워가는 가슴벅찬 현실속에 살고있다.

하루밤 자고나면 어디어디에 인민을 위한 휴식터와 공원 이 새로 꾸려졌다든 소식 이 날아들고 또 하루밤 지나면 과학자들을 위한 새 거리가 일떠섰다는 소식, 본래있게 창조되고 단숨에 솟구쳐오르는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 스키장과 같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창조물들에서 인민들이 기쁨과 광만의 웃음꽃을 피운다는 소식, 맞고대로 들리는것은 기쁨의 소식, 보이는것도 환희의 절경이다.

천도교경전에는 만년에 대

일변이, 천년에는 중일변이, 백년에는 소일변이 오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100년, 10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더욱 눈부서 예상하기조차 힘든 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가, 철세위인을 모셔 이 땅에 펼쳐지는 최후의 현실이다.

얼마전 해가 만나본 한 해외동포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정치에서 오랜 경험이 통하기 마련이고 정치경륜의 부패가 인기도를 많이 좌우하는 법인데 어떻게 되어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그러한 짧은 기간에 이북동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운명의 구세주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로 말해주었다. 그것은 원수님께서 너무도 출중하시고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령도자이기때문이라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은 그의 천품이고 정치의 핵이며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행복과 불멸성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설계를 하나 해도 인

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시고 거리를 일떠세워도 인민을 위한 거리를 일떠세우시며 병원을 건설해도 인민을 위해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과 같은 최상급의 병원들을 건설해주시는 원수님이시다. 현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 제일 먼저 만나보시는 사람들도 평범한 인민들이고 병사들이며 언제나 제일 줄거들으시는 말도 인민의 목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표현과 말씀도 《인민》이라는 표현, 인민생활과 관련한 말씀이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셨는가.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하늘로 떠받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간직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분들처럼 인민을 받들겠다고 하시었으니 인민을 위하여는 그 헌신적복부의 높이와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게 마음껏 물놀이

를 하며 기쁨과 생활의 정서를 꽃피우도록 하시려고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그곳을 찾으시여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주신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원수님의 정치가 얼마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인가 하는것을 가슴절절히 느끼게 된다.

예로부터 묘주로는 고인의 혈육, 묘를 관리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써넣어왔다. 그 묘주로 혈육이 아닌 한 나라 최고령도자의 이름이 적혀진 때는 동서고금에 없는줄로 안다. 그런데 인민을 위하여 가우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비약과 변영의 찬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출중한 정치가, 회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기쁨과 영광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외국언론들에서 세계적인 명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남조선에서 더욱 높아가는것도 창조와 기적을 수놓아가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위치를 떠나가시는 회세의 위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고 찬양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사랑이 있는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당을 따라만나시려를 헤쳐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인민사랑의 정치에 떠날려오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어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머지않아 이 땅에서 행복의 미래를 앞당겨 부르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맡아 보살펴주

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만백성의 하늘이시다.

우주에 닿은 국력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전우, 동지의 뜨거운 세계에 떠날뎀린 불패의 군력은 나라를 지키며 황홀한 문명향유의 주인공이 평범한 인민이고보면 공화국의 모든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모습은 그대로 우리 천도교에서 내세운 《인내천》, 《보국안민》의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화원을 가우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비약과 변영의 찬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출중한 정치가, 회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기쁨과 영광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외국언론들에서 세계적인 명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남조선에서 더욱 높아가는것도 창조와 기적을 수놓아가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위치를 떠나가시는 회세의 위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고 찬양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사랑이 있는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당을 따라만나시려를 헤쳐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인민사랑의 정치에 떠날려오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어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머지않아 이 땅에서 행복의 미래를 앞당겨 부르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송고한 그 념원을 안으시고

어쩌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아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코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가지까지 초강도강행군 길을 쉬임없이 걸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우에 강성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의지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속도로 창조와 변혁의 역사를

빛나게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년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들을 찾으시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셨다.

주제101(2012)년 1월 중순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여러 건설대상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건설대상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건축물들의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을 구상하고 어떤 대상을 하나 건설하여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꽃피우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생전에 늘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아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코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가지까지 초강도강행군 길을 쉬임없이 걸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우에 강성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의지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속도로 창조와 변혁의 역사를

공장을 돌아보며 새 기계들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장군님께 이 성과를 꼭 보고드리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인민의 행복, 그것은 장군님의 념원이었고 오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날과 달을 이어 현지도강행군길을 계시며 수많은 인민사랑의 념원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꽃피우시는 것이냐.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이 땅우에는 튜링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수 있었고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는 선군조선의 변영을 맞이할수 있었다.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며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고 통일강국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김강철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굽어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이 넘친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예석하게 잃고 흘러온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모두의 가슴속에 떠오르는 친근한 모습, 그것은 사상도 령도도 품오도, 장군님과 똑같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 인민은 령도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걸어온 영광의 그 길에서 심장의 박동도, 진군의 발걸음도 그이와 함께 하며 높이 받들어 모신것이다.

피눈물의 12월에 비통과 슬픔에 잠겨 쓰러진 인민을 장군님의 사랑으로 풀어안아 일떠세우신분, 장군님의 따뜻한 미소로 원아들의 언손도 녹여주시고 풍랑세찬 파도를 넘어 평범한 군

반의 아들생일도 축하해주신분, 새집들이 가정도 찾아주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장군님의 축복을 그대로 안겨주시는...

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장군님 그대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한 아버지로 오시였다.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이며 그이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는 《강성원》의 로동자들, 그이 라신 배를 바래드리러 벅속까지 얼어드는 바다물에 뛰어드는 월내도의 군인들...

본사기자 김정혁

《그이 없인 못살아》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선율이 아닌 녀의 웨침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어 모시던 그때처럼 믿고 따른다.

사상과 뜻과 정으로 뭉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더욱 순결해지고 백배로 강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그이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간다.

장군님의 유혼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오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때 드림없는 맹세가 비약의 불보라를 일으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나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떠세우실 강성국가의 밝은 태양을 앞당기기 위하여...

본사기자 김정혁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있다.

중국총공집지 《국제연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사랑과 흠모심에 세계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만나시어는 그들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정히 손잡고 걸으시며 귀속말도 나누신다.

어린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불도 다독여주시고 무릅없이 울리는 청도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이이다. 그이께서는 평범한 병사들, 인민들과 허물없이 어깨를 걸고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으신다.

사랑과 정으로 병사들과 인민들을 따듯이 품어주시는 그이의 품오에 누구나 매혹되고있다.

《로씨아의 공산주의자들》

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품오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것은 한없이 고결한 덕망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을 때 조선인민은 최대의 상실감과 비통함에 몸부림치며 곳곳에 꾸러진 조의식장들을 찾아 흑한속에서도 스스로 호상을 썼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의식장들에 몸눕는 장소를 꾸리고 더운 차와 꿀물 등을 보강해주도록 긴급조치를 취

해주시였으며 조의행사에 참가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였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는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의 품오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리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송고한 화폭은 그이의 투철한 인민관과 때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꾼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령도일에 오늘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민중공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열렬히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며 인민들은 령도자를 위해 충정을 다 바친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인

민사랑의 정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탈리아의 지파 아베르타 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이시야말로 인민의 수령,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세계의 명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다.

본사기자



서사시

겨레가 부르는 2월의 태양찬가

산천도 그리움의 서리꽃을 피우는
경사로운 2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이 마음
속에

더욱 송엄히 새겨지는
아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여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느냐
우리 장군님 리용하시던 승용차며
경쾌한 기적소리, 발동소리
오늘도 심금을 울리며 들려올듯싶은
렐차며 배며...

이 승용차를 타시고
이 배를 타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렐차를 집무실로 집으로 삼으
시고
우리 장군님
인민의 행복만을 가꾸어주셨던가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도
꿈을 꾸어도
늘 조국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시며
한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다 바쳐
오신분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오늘도 온 겨레를 부르며
또다시 달릴것만 같은
불멸의 사적물들에 마음을 싣고
가자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세계
뜨겁게 새기며 가자

1

수천리눈길을 헤쳐
금방 이 흠에 들어와 벗어선듯
너무도 낮익은 승용차
저 차문을 여시고 우리 장군님
환하신 미소 짓고 내리실듯

내 마음에 들러와라
한평생 통일을 위해 고동치던
우리 장군님 십장의 박동소리처럼
이 땅에 울려가던
승용차의 발동소리

그 발동소리 따라
나의 추억은 달려라
눈덮인 북방의 외진 산골길
얼음깔린 그 길로

뿐아니 날리는 눈갈기
한치알도 가려보기 힘든 눈보라속에
쏟아진 눈이 달리는 장군님승용차
뒤따르던 차들은 아득히 멀어지고...

지금도 울려오는듯
송구스러워하는 일꾼들에게
장군님 하시던 말씀
내가 탄 승용차가 너무 빨라
동무들이 따라오기 힘들다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가

이번 길은 강행군길이기때문에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라
나를 따라 달릴 기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따라서지 않는것이 좋겠다

그때 일꾼들 말씀드렸더라
길이 얼음강관처럼 미끄러워
너무도 위험하다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었으면
한다고

그이 어이 모르시었으랴
일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그들의 진정은 고마웠지만
절절히 하시던 장군님말씀

-우리가 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만큼 조국통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라 없이
장군님 나직이 말씀하셨건만
그이의 음성
폭풍처럼 격랑을 일으켰다
일꾼들의 가슴가슴에

우리 걸음이 늦어지면

통일이 그만큼 늦어진다
겨레가 그리도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조국통일이!

그래서였으리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박철통
년년들이 들이타치는 자연재해
전대미문의 그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통일념원을 언제나 안고사신
것은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보다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생각 앞세워야
한다시며
최전방 관문점으로 나가시고
눈내리는 백두의 산정에도 오르
시고...
통일애국의 천만리장정을 이어오셨
어라

그 날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불멸의 로작들이 발표되어 겨레의
아걸
휘황히 밝혀주었고
분렬의 먹장구름을 떠밀어내며
마침내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펼쳐졌
거니

55년 기나긴 분렬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
삼천리가 통일의 열기로 뚫어번지고
은 세계가 격정의 눈길을 모으던
그 6월

대결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으시며
사상과 제도, 정견을 넘어
남녘사절 뜨겁게 포옹해주시고
승용차에 함께 오르실 때
은 겨레가 절감했어라
우리 장군님의 통일외지들

끝없는 꽃물결이 펼쳐진
환영연도를 따라 달린 승용차
통일의 길에 겨레를 위한 길에
하많은 사연 수놓은 승용차여서
겨레의 격정 것처럼 뜨거웠던가

아, 정녕 그날은
은 겨레를 품에 안아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넓은 길에 세워주신
크나큰 감격과 경사의 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통일의 새 시대
력사의 새 시대를 여는 장엄한 선언
장군님의 통일외지 통일신념이 세운
자주통일의 리정표였나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것이
길이라 하였지만
통일을 위해 걸으신 장군님의 길
그 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애국애족의 길

하루도 순간도 휴식없이
장군님 가고가신 통일의 길
그 길에서 하시던 장군님 말씀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친다

-이렇게 깊은 밤길이
조국통일에 가닿았다면
나는 이제라도
백리 천리를 더 가고싶소

오늘도 우리 겨레 가슴가슴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그 말씀
정녕 아버지장군님
밤이나 낮이나 통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시었거니

진정 우리 장군님의 환생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생애의 1분1초도
강그리 다 불태워오신
통일헌신의 열화같은 환생

우리 장군님 가신 모든 길은
조국통일을 위해 가고가신 길
우리 장군님의 시간은
조국통일을 앞당겨오신 시간

이 나라의 산과 들을 끝없이 누비
시며
통일의 대강을 무르익히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시던
절세위인의 불멸의 자욱을 전하며
오늘도 승용차는
겨레의 마음속에 끝없이 달리고있
어라

2

지금도 기적소리 드높이
두줄기 레루를 줄기차게 누비는듯
생각도 많아라
우리 장군님 리용하시던 렐차여

이 렐차를 집으로, 집무실로 삼으
시고
어디랴 이 나라 방방곡곡
찾고 또 찾으시며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신 장군님

그 길에 수놓아진
하늘의 별처럼 많고많은 사랑의
이야기
내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만
통일에 바쳐진 숭고한 사랑이
새겨진
감동의 화폭 다시 펼쳐보노라

어느해 4월
봄향기 넘치는 대기를 가르며
동해안선을 따라
달리고달리던 특별렐차

그 렐차에는
뜻깊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그 축전에 처음 참가한
한 남조선녀가수가 타고있었다

그처럼 오고싶던 북녘땅
한겨레가 사는 땅을
이렇게 밝아보는것만도
그지없는 행운인데
그이를 만나뵈옵수 있나니

너가수의 절절한 소망
마음속 소원까지도 다 헤아려
몸소 특별렐차까지 보내어
자신의 걸으로 불러주신 장군님

잘 왔다고
반갑다고 두손을 잡아주실 때
너가수의 가슴속에 갈마드는
이 세상 다시 없는 행복한 생각

은 겨레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
오랜 세월 오늘까지
자기를 보살펴주신것만 같아
친정아버지 모습처럼 안겨왔어라

6.15와 함께
김정일영풍이 휘쓰는 남녘땅
자기도 그 열풍에 휩싸여
그이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평양에까지 찾아왔다고
격정에 넘쳐 아되는 너가수

노래를 불러도
장군님 칭송의 노래만 부르고싶고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싶은 심정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소원
마음속에만 간절히 묻어둔 소원
하나 어떻게 그의 마음
그렇게도 잘 헤아려주실가
장군님 노래를 들어보자고 하신다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가까이 불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파분한 치하도 해주시는 장군님

꿈만같은 시간은 흐르고
너가수는 행복에 시간을 잊고있는데
자주 와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 따듯이 말씀하신다

-이제는 문이 열렸으니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할것입
니다
눈물속에 기쁨속에

장군님을 우리르는 너가수
그의 마음속엔
그 무엇으로도 멈출수 없는
신념의 노래가 터져올랐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여
그가 누구든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는
거세찬 이 대하를 막지 못합니다

위대한 당신은
저의 친정아버지이십니다
경애하는 당신은
7천만 우리 겨레의 아버지이십니다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사람들이여
이것이 어찌
그 혼자의 심정만이였으랴
장군님을 만나뵈온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터치는 이 진정

아버이 품을 찾아
남녘의 가수가 달려왔던 길
그 길을 따라 남녘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오고왔던가

정해진 두줄기 궤도를 따라
렐차는 달린다 했더라
그러나 우리 장군님 렐차는
그 궤도우로만 달리지 않았어라

궤도가 없었다
우리 장군님 렐차에는
분계선이 두줄기 궤도를 끊어놓았
어도
장군님 마음은 서울과 대전 부산...
남녘땅 곳곳에 다 뻗어있었거니

하루에도 그 몇번
밤이나 낮이나 때없이
혈육의 정을 안으시고
마음속의 그 궤도를 달리셨을
장군님

얼마나 아프시었으랴
한치맥을 이었던 철길을
무참히 동강낸 저주로운 분계선
수십년세월 녹이 쓴채로 내버려진
그 철길이 끊어진 민족의 혈맥같아

하루바삐 그 혈맥을 잇고싶으신
장군님의 심정
그 철길로 통일의 기적소리
드높이 울리게 하고싶으신
장군님의 념원

그 심정 그 념원으로
신의주-서울사이 철길을
런결 해주셨으면 하는 남 축의
요구에
장군님 뜨겁게 하시던 말씀이여

그러면 조선땅이 찢그러든다
서해선철길만이 아니라
동해선철길도 런결해야 한다

아,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릴
삼천리 내 조국의 밝은 래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신행을 다 바쳐오신
민족의 아버지

정거장도 따로 없이
오직 통일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힘없이 끝없이 달려온 렐차와
더불어
6.15시대는 기운차게 전진하여왔
나니

그 시대에 폭풍처럼 터져오르던
위인칭송의 열풍
남녘의 곳곳에서
해외의 곳곳에서
터져오르던 위인찬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한 태양찬가로 울린다

태양의 빛발 우리르는
겨레의 마음속에 달리고달리는
우리 장군님의 렐차
오늘도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을 향해 달리고있어라

3

망망대해에 비할수 없는
너무도 작은 배이건만
조국을 싣고
은 민족을 싣고 달려던
통일의 크나큰 배
장군님 리용하시던 배여

물에는 자유이 찍히지 않는다
했지만
통일을 위해 장군님 남기신 자욱
가없는 푸른 물결우에도
끝없이 새겨져있어라

넓고넓은 바다에
추억의 닻을 내리면
겨레의 가슴에 안겨오는
한없이 은혜로운 장군님사랑

깊어지는 생각속에 어려오느냐
우리 장군님
남녘기업가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금강산관광을 위한 빠른 배길까지
정해주시던

잊지 못할 화폭이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배갑판우에서
남녘의 기업가들을 위해 오찬을
배우신 장군님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금강산까지
오는
시간을 물으시었어라

부산과 동해항에서 떠난 배들이
공해로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사연
하루길도 안되는 관광길
이들만에 온다는
남측관계자들의 대답을 들으시며
생각도 깊으신 장군님
또다시 크나큰 은정 배우시어라

북남관계에선
에도는 일이 있어서야 되랴
곧바로 들어오라!

남녘동포들의 편의를 봐주고
남녘기업가들의 실리를 보장해주랴
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자는데 있다

절세위인의 대법한 도량과 결단에
남녘의 기업인들 감격을 금치 못해
하는데
몸소 축배잔도 쥘어주시며
동포애의 정 뜨겁게 부어주신
장군님
력사에 남을 사진까지 찍어주셨나니

사람들이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남녘의 기업인들과 함께 찍으신 그
사진은
사랑으로 아버이의 사랑으로
은 겨레를 한품에 안으신
위대한 아버이의 그 모습은
태양처럼 눈부신 사진이여라

정녕 그날애
위대한 장군님 그어주신
금강산관광로정
그것은 그대로 통일로정이었으니

에들이 없이
오직 곧바로!
키 좌로 우로가 아니라
오직 곧바로!

통일은 오직 곧바로!
이것은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
그 신념과 의지로
통일의 키를 잡으시고
7천만 우리 겨레를
곧바로 향도하신 아버지장군님

바다를 헤가르며
남녘겨레를 금강산에 왔던가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실려
금강산을 찾고 또 찾아왔거니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랑의 한품에 품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김영일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어주시는
장군님

하기에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으로 불렀다
통일의 태양으로 칭송하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거니

겨레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쉽없이 설레이는 저 바다를
우리 장군님의 통일외지
뜨거운 동포애를 전하며
바다도 잠들지 못함을 잊지 마시라

아,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 닻을 내린
배
정녕 여기에 닻을 내렸던가

통일의 길에 아로새겨진
절세위인의 전설같은 이야기 수놓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의 배
오늘도 통일의 항로우에 있어라

* *

위대한 장군님
승용차를 타시고
렐차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달리시던 길
그 길을 이어
나의 노래는 계속되거니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사상과 명도, 품모도 통일의지도
꼭 같으신
김정은원수님
그분을 모신것은 민족의 천운

장군님의 통일유훈 꽃피우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분
장군님 한생을 바쳐 걸고걸으신
통일의 길 원수님 이어가시기에
나의 노래 더욱 뜨겁나니

겨레여 듣지 않았느냐
뜻깊은 올해신년사에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위대한 수령님
조국통일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거족적인 투쟁으로
힘차게 열어가자고 호소하신 원수님

그 모습 찬란한 태양이런가
겨레가 러친 흙모의 격정
그이 모시여 민족의 미래
통일조선의 앞날 창창하다고
남녘에서 해외에서
터쳐올린 감격의 환호

대결과 불신을 가지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실
원수님의 숭고한 뜻
그 뜻에 받들려
분렬의 열음장은 녹아내리고
통일의 새봄맞이 그리며
삼천리강도가 설레이나니

태양의 성지 이곳에서
나는 보노라
6.15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 원수님
이 땅에 안아오실 통일의 해돋이
하나로 된 내 조국의 모습을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하나가 되는 조선을
통일강국으로 위용펼칠
삼천리 내 조국의 휘황찬 모습을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여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으로
겨레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나니
겨레가 부르는 통일의 태양찬가는
세월의 언덕넘어 끝없이 울려퍼지
리라